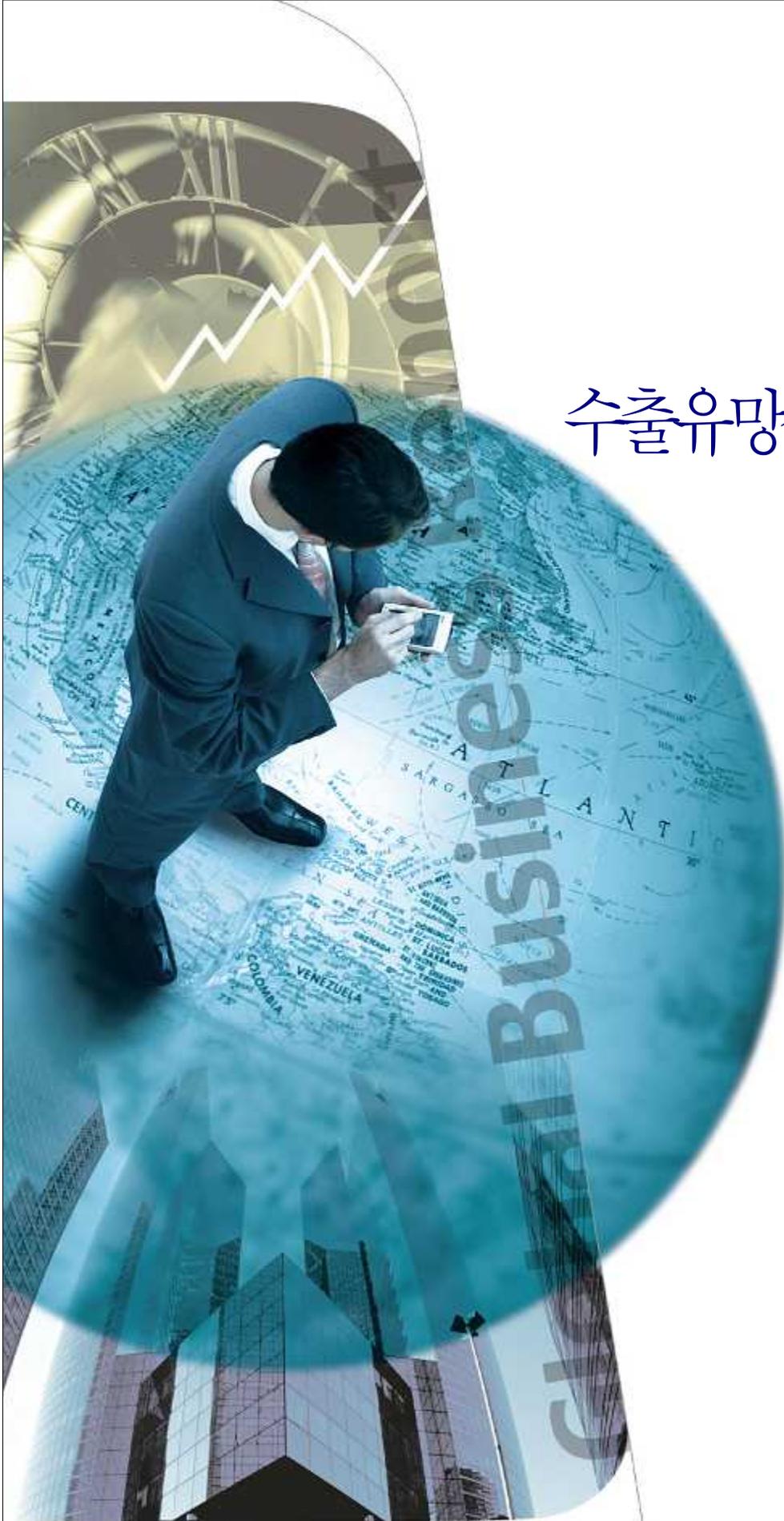


한· 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 2

I. 한·페루 FTA 협상경과 / 3

- 3 | 1.1 한·페루 FTA 협상경과
- 3 | 1.2 기대효과

II. 페루 시장개황 / 4

- 4 | 2.1 페루 시장개요
- 5 | 2.2 페루의 FTA 체결현황
- 6 | 2.3 주요 산업현황
- 9 | 2.4 한·페루 경제교류 현황

III. FTA 수혜산업 및 수출 유망상품 / 13

- 13 | 3.1 수출 유망상품
- 22 | 3.2 투자진출 유망분야
- 23 | 3.3 투자진출 유망 프로젝트
- 26 | 3.4 진출 기업현황
- 27 | 3.5 주요 프로젝트

IV. 한·페루 FTA체결 현지 반응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 28

- 28 | 4.1 현지 주요업계 반응
- 32 | 4.2 바이어 설문조사
- 34 | 4.3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반응
- 36 | 4.4 FTA활용 우리기업 진출전략

요 약

2009년 3월 FTA 협상이 시작된지 약 2년만인 지난 3월 21일 한·페루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페루와의 FTA가 발효를 앞두고 되었다. 한·페루 FTA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속에서 양국의 교역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페루의 풍부한 자원 선점효과는 물론 고관세 부과 품목의 수출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FTA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자원 부국인 페루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며, 이외에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은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페루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은 원자재와 농목축 제품으로 그 비중이 약 80%에 이르며, 특히 광물과 석유제품의 수출이 70%를 차지한다. 페루와의 교역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합성수지, 철강판을 주로 수출하며, 각종 자원과 식품류를 주로 수입한다. 동시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자원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페루 FTA의 발효가 빠르면 이번 6월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의 승용차, 자동차배터리, 가전제품, 의약품, 직물 등의 품목들이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승용차는 현재의 관세(6%)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본-페루간 FTA 협상이 타결되면 경쟁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지만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아 점유율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약품이나 직물은 이미 현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시장점유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OTRA가 페루 바이어와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FTA의 효과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페루 바이어의 70%가 한국으로의 거래선 전환 의사를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현지진출 기업의 반응 역시 가격경쟁력 확보와 인지도 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페루 FTA는 중남미시장에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일본과의 시장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I. 한·페루 FTA 협상경과

1.1. 경과

- ('07.10) FTA공동연구 제1차 회의
- ('08.05) 민간공동연구 종료
- ('09.03) 제1차 협상개시
- ('09.10) 제4차 협상개시
- ('10.08) 제5차 협상 - 타결
- ('10.11) 가서명
- ('11.03) 정식서명
- ('11.06 예상) 비준 및 발효

1.2. 기대 효과

- 양국간 FTA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 한국경제규모가 페루에 비해 10배 가량 커서 효과는 페루에 더 크게 작용
 - 한국은 0.01% 소득증가, 0.006% 후생증가, 0.03% 수출입증가 효과전망
 - 페루는 0.23% 소득증가, 0.22% 후생증가, 0.66%수출, 0.65%수입증가 기대
- 품목별로는 승용차, 모터사이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등 고관세(9%) 부과 품목이 수출증대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수입의 경우 주종 수입품목인 아연광, 동광은 수입관세 0%로 관세철폐 혜택이 없으며, 냉동어류(오징어 등), 포도, 커피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크지 않을 전망

II. 페루 시장개황

2.1. 페루 시장개요

□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

- 2010년 8.7%의 고성장을 달성한 페루는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부터 공공지출 감축등을 통한 긴축에 나서고 있는 추세로 2011년에도 보수적인 경제정책이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보다 다소 낮은 6% 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고도성장은 1990년대 개방정책으로 인한 투자와 생산성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
 - 2010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7%의 적자를 보인 이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5년에는 GDP 대비 4.2%에 달할 예정
 -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도 2010년 GDP 대비 3.9%에서 2015년 2.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 수입 또한 고도성장의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의 확대 및 개발업자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
 - 2010년 수출은 338억 달러, 수입은 274억 달러를 기록함
 - 2011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신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 촉진, 고용증대, 수출 확대 등을 추구할 예정
- ▶ 재정정책
- 국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공공부채가 GDP 대비 2010년 22.5%에서 2015년에는 14.2%까지 경감될 전망
 - 2011년 GDP 대비 비금융분야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보다도 낮은 0.6%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페루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임

- 빠르면 2011년 내 재정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채 부담도 GDP 대비 2010년 22.5%에서 2015년에는 14.2%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통화정책

- 페루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 기준이자율을 현재의 3.5%에서 연말까지 4%로 인상할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11년에도 2%내로 유지한다는 목표임

2.2. 페루의 FTA 체결현황

- 2006년 미국과의 FTA 비준 이후로 페루는 주요 국가와의 FTA를 활발하게 추진 중
 - 미국과의 FTA체결 이후 EU,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한국과의 FTA를 순차적으로 타결하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음

대상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안데스공동체(CAN)	관세동맹	발효	1997년에 가입, 2005년에 안데스 동맹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 완료
남미공동시장(MERCOSUR)	경제보완협정 제58호 (ACE 58)	발효	2003년 8월 체결
멕시코	경제보완협정 (ACE 8)	발효	2000년 8월 발효
쿠바	경제보완협정 (AAP.CE. 50)	발효	1994년
칠레	FTA	발효	2009년 3월
싱가포르	FTA	발효	2009년 8월
미국	FTA	발효	2009년 2월
캐나다	FTA	발효	2009년 8월
중국	FTA	발효	2010년 3월
태국	FTA	발효 예정	비준준비 중
유럽연합(EU)	FTA	발효 예정	발효 예정
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예정	발효 예정
일본	FTA	협상 중	2010년 6월 현재 협상 중
한국	FTA	체결 예정	2010년 8.30 협상 타결

자료원 : 통상관광부(MINCETUR)

2.3. 주요 산업현황

가. 개요

- 페루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균형의 산업구조를 보유
 - 2009년 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은 71.7%에 달하는 데 반해 제조업의 비중은 14.3%에 불과함
- 또한 페루는 전통적인 남미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으로 동(2위), 금(5위), 은(1위), 아연(2위), 주석(3위) 등의 매장량이 매우 풍부
 - 특히 세계 동 매장량의 6.4%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 구리가격 인상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천연가스의 매장량 또한 남미 7위로 높아 최근 가스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가 잇따르고 있음

<산업별 GDP 구성 및 성장률>

(단위 : %)

분야	산업별 비중(2009년)	산업별 성장률	
		2009	2010
농·목축	7.8	2.3	4.3
· 농업	4.7	0.9	4.2
· 목축	2.4	4.4	4.4
수산업	0.4	-7.9	-16.6
광업·원유개발	5.7	0.6	-0.8
· 금속광업	4.7	-1.4	-4.9
· 원유개발	0.6	16.1	29.5
제조업	14.3	-7.2	13.6
· 1차산품 가공	2.8	0.0	-2.3
· 非1차산품 가공	11.4	-8.5	16.9
전기상수도	2.0	1.2	7.7
건설	6.2	6.1	17.4
상업	14.9	-0.4	9.7
기타 서비스업	48.6	3.1	8.1
전체 GDP	100.0	-	-

자료원 : 페루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u)

나. 산업별 현황

□ 농·목축업

- 2009년 기준 농·목축업은 GDP의 7.8%를 차지
 - 농·목축업은 2010년 성장률이 4.3%에 달하면서 6년 연속 성장, 특히 커피, 망고, 포도, 아스파라거스, 카카오, 아보카도 등 수출용 작물 생산이 11.1% 성장하였으며, 목축·낙농업 제품 생산은 4.4% 증가함

□ 광업·석유

- 광업 및 원유개발업은 2010년 마이너스 0.8% 성장하였는데, 이는 Yanacocha, Barrick Misquichilca 등 주요 금광의 금 생산 감소와 아연 생산 저조에 기인
 - 한편, 철 생산은 중국의 철강수요 증가에 따라 늘고 있으며, 천연가스 또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도 증가함

<2009년 페루의 광물별 생산량 순위>

광물	세계	라틴아메리카
은	1	1
아연	2	1
주석	3	1
비스무트	3	1
텔루리움	3	1
수은	3	1
납	4	1
금	6	1
동	2	2
몰리브덴	4	2
셀레늄	7	2
카드뮴	14	2
철	17	5

자료원 : 페루에너지광업부

<주요 광물 생산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동	천메트릭톤	1,010	1,048	1,190	1,268	1,275
금	천온스	6,687	6,521	5,473	5,783	5,864
아연	천메트릭톤	1,202	1,203	1,444	1,603	1,509
은	천온스	103,064	111,584	112,574	118,505	123,909
납	천메트릭톤	319	313	329	345	302
철	천메트릭톤	4,565	4,785	5,104	5,161	4,419
주석	천메트릭톤	42	38	39	39	38
몰리브덴	천메트릭톤	17	17	17	17	12

자료원 : 페루에너지광업부

<2009년 주요 산업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수출액	비중 (%)
광물	16,361	60.85
석유	1,894	7.04
농·목축제품	1,823	6.78
어류	1,683	6.26
식물	1,492	5.55
화학제품	837	3.11
농산물	633	2.35
철제품	560	2.08
수산물	517	1.92
금속기계	357	1.33
원목·종이	335	1.25
비금속광물	148	0.55
기타	247	0.92
합계	26,887	100

자료원 : 페루에너지광업부

<세계 주요국별 광물투자 비중(2009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캐나다	16	멕시코	5
호주	13	칠레	5
페루	7	중국	4
미국	6	브라질	3
러시아	5	남아공	3
멕시코	5	기타	33

자료원 : 페루에너지광업부

□ 제조업

- 무역자유화 이후로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려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된 이래 제조업의 비중은 15%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중 20%는 식품, 어분 및 광산물 가공 등 1차 산품 가공 산업이 주를 이룸
 - 어분 생산은 페루의 중요한 제조업 중 하나임
 - 2010년 4/4분기 제조업 분야는 2009년 동기 대비 13% 증가, 제조업은 다시 비전통산품 제조업 13%, 전통산품 제조업 3.7%로 나눠짐
 - . 전통산품 제조업의 저조한 원인은 안초베타 포획금지로 인한 생산 위축, 사탕수수 경작과 설탕생산 감소에 기인함
 - . 반면, 육류, 생선 통조림, 비철금속, 동 파생제품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분야는 활발히 성장함

□ 건설

- 인프라 부족이 페루의 가장 큰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페루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
 - 2010년 건설업 성장률이 17.4%에 달하면서 페루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음
 - . 주택, 인프라 건설 붐으로 시멘트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해 시멘트 수입도 2009년 대비 223% 증가하였음

2.4. 한·페루 경제교류 현황

가. 수출입

□ 중남미 중 제9위의 대상국, 한국은 페루의 제9위의 수입국

- 중남미 교역국가 중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에 이은 9번째 수출시장
- 미국, 중국, 브라질, 일본 등에 이어 9번째 수입국

<한·페루 연도별 수출입 총괄>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7	466	29.9	1,040	53.9	-574
2008	720	54.5	904	-13.1	-184
2009	641	-10.9	919	1.7	-278
2010	944	47.2	1,039	13	-94
2011.1-2	170	27.1	416	87.8	-24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

<한·페루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10		2011(1월~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	372	104.6	58	3.2
합성수지	71	134.1	20	363.5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1	222.5	17	13,860.6
철강관	55	79.1	8	412.8
건설광산기계	21	107.9	6	335.0
정밀화학원료	41	73.0	5	42.0
기타석유화학제품	19	51.1	4	127.7
영상기기	6	-77.2	4	114.2
자동차부품	21	18.9	4	82.0
고무제품	21	25.5	3	19.9
무선통신기기	25	47.5	3	-23.6
기타직물	9	3.0	3	88.4
정전기기	4	94.4	2	573.0
시멘트	13	556.0	2	-38.6
컴퓨터	19	59.5	2	-7.9
철강관 및 철강선	31	1,078.2	2	-53.3
플라스틱 제품	10	51.0	2	62.5
종이제품	7	8.2	2	86.3
항공기 및 부품	1	-93.8	2	-
섬유 및 화학기계	10	46.1	1	94.8
총 계	944	47.2	170	27.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

<한·페루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10		2011(1월~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천연가스	0	-	211	-
기타금속광물	192	13.7	73	8.9
동광	486	58.3	67	13.1
아연광	172	-9.7	32	-22.2
기호식품	32	68.2	16	173.4
금은 및 백금	13	230.3	4	12,157.8
수산물가공품	22	-4.4	4	155.9
의류	9	3.0	2	5.0
어육 및 어란	7	43.7	1	157.9
동제품	6	-78.3	1	7,571.5
연체동물	9	1.3	1	16.5
염료 및 안료	2	118.9	1	458.9
기타농산물	1	14.1	0	1,336.8
기타	88	-	3	-
총 계	1,039	13	416	87.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

□ 우리기업의 페루 투자는 자원개발에 집중

○ 현지 진출 우리기업 대부분 자원개발에 집중

- 현지 진출한 기업으로는 LS NIKKO, 대우 인터내셔널, 한국석유공사 등으로,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원개발 투자임

<한국의 대페루 투자동향>

(단위: 건, 개, 천불)

연도	신고 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6	7	3	193,949	26	61,635
2007	7	5	10,277	43	94,098
2008	9	5	274,664	52	82,149
2009	12	4	134,154	55	40,138
2010	18	5	250,328	67	48,269
합 계	107	42	1,569,867	442	775,33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5. 페루의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 수입 또한 고도성장의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의 확대 및 개발업자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
- 2010년 수출은 338억 달러, 수입은 274억 달러를 기록함

<페루의 국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국 가	수입액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미국	5,766.51	4,608.48	5,671.68	18.5	17.4	16.3
중국	3,735.60	4,055.88	5,422.50	12.0	15.3	15.5
스위스	3,410.32	3,872.05	3,825.29	10.9	14.6	11.0
캐나다	1,949.46	2,254.24	3,302.11	6.3	8.5	9.5
일본	1,855.33	1,358.18	1,745.51	6.0	5.1	5.0
독일	1,028.18	1,025.93	1,513.96	3.3	3.9	4.3
칠레	1,838.57	724.47	1,371.71	5.9	2.7	3.9
스페인	1,018.75	733.06	1,162.28	3.3	2.8	3.3
브라질	895.30	498.59	947.03	2.9	1.9	2.7
이탈리아	926.61	605.65	927.47	3.0	2.3	2.7
한국	551.68	748.86	894.61	1.8	2.8	2.6
합 계	31,207.64	26,535.36	34,909.49	100	100	100

자료원 : 페루세관

<페루의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국 가	수입액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미국	5,595.83	4,341.76	5,828.60	18.7	19.9	19.4
중국	4,065.16	3,261.29	5,116.70	13.6	14.9	17.0
브라질	2,416.30	1,691.47	2,183.60	8.1	7.7	7.3
에콰도르	1,775.29	1,019.15	1,424.41	5.9	4.7	4.7
일본	1,277.69	929.10	1,373.01	4.3	4.3	4.6
콜롬비아	1,282.11	949.39	1,328.58	4.3	4.3	4.4
멕시코	1,161.37	734.11	1,119.54	3.9	3.4	3.7
아르헨티나	1,580.05	874.56	1,108.48	5.3	4.0	3.7
칠레	1,184.10	995.85	1,048.84	4.0	4.6	3.5
한국	779.57	647.72	1,044.97	2.6	3.0	3.5
합 계	29,982.22	21,864.16	30,126.52	100	100	100

자료원 : 페루세관

III. FTA 수혜산업 및 수출 유망상품

3.1. 수출 유망상품

① 승용차(HS Code 8703)

- 현 관세율은 6%로 10년에 걸쳐 관세철폐가 예상되어 수출이 증가할 전망
- 현재 일본-페루간 FTA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본차를 앞설 수 있는 품질과 가격 양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함

<페루의 승용차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일본	466.38	362.91	474.52	51.2	50.2	43.3
2	한국	150.83	146.78	273.33	16.6	20.3	25.0
3	미국	56.70	46.21	78.13	6.2	6.4	7.1
4	독일	45.15	39.63	56.30	5.0	5.5	5.1
5	멕시코	31.02	25.89	51.55	3.4	3.6	4.7
6	중국	29.46	22.36	42.64	3.2	3.1	3.9
7	브라질	57.35	22.93	37.36	6.3	3.2	3.4
8	태국	14.61	8.17	15.61	1.6	1.1	1.4
9	인도	10.59	6.76	14.14	1.2	0.9	1.3
10	영국	4.58	5.82	10.59	0.5	0.8	1.0
합계		910.46	722.43	1,095.24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② 자동차 배터리(HS Code 8507.10)

- 발효 이후 10년에 걸친 관세 철폐 대상품목으로 현지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자동차 수출증가에 따라 배터리 수출이 함께 증가할 예정이며, 중국과의 FTA에서 배터리가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것도 호재

<페루의 배터리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콜롬비아	11.92	7.08	13.09	64.3	55.7	58.9
2	한국	1.62	1.69	2.81	8.7	13.3	12.7
3	미국	1.74	1.65	2.79	9.4	13.0	12.5
4	중국	1.41	1.11	1.63	7.6	8.8	7.3
5	대만	0.24	0.38	0.78	1.3	3.0	3.5
합계		18.54	12.71	22.22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③ 텔레비전(HS Code 8528.72)

- FTA 발효 즉시 무관세율 적용 품목으로 현재의 6%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 예상
- 그럼에도 중국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비중이 커 한국 생산 TV의 혜택은 크지 않은 전망이다
- 대형 TV는 SONY(17%)와 Panasonic(18%), 재래식TV는 SONY(35%)와 LG(18%), 플라즈마/LCD TV는 SONY(29%)와 LG(16%) 등의 순으로 점유

<페루의 텔레비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멕시코	95.40	76.98	202.79	49.5	49.1	70.3
2	중국	82.90	47.34	69.17	43.0	30.2	24.0
3	한국	9.82	27.19	10.61	5.1	17.3	3.7
4	브라질	0.05	0.04	2.46	0.0	0.0	0.9
5	홍콩	0.00	4.04	2.25	0.0	2.6	0.8
6	말레이시아	1.22	0.27	0.29	0.6	0.2	0.1
7	태국	0.55	0.33	0.24	0.3	0.2	0.1
8	미국	0.79	0.26	0.23	0.4	0.2	0.1
9	일본	1.56	0.28	0.09	0.8	0.2	0.0
10	대만	0.09	0.01	0.07	0.1	0.0	0.0
합계		192.91	156.85	288.40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④ 세탁기(HS Code 8450.11)

- 현재의 관세율 13%는 발효와 함께 4년에 걸쳐 인하할 예정. 현지에서 LG 및 삼성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국내 생산보다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이 많아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급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
- 중국산 세탁기는 FTA발효 직후 무관세율이 적용되어 현지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페루의 세탁기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중국	12.67	11.10	11.68	70.6	70.4	71.5
2	태국	4.64	4.16	4.14	25.9	26.4	25.4
3	한국	0.03	0.09	0.19	0.2	0.6	1.2
4	독일	0.00	0.05	0.14	0.0	0.3	0.8
5	미국	0.01	0.04	0.09	0.1	0.3	0.6
6	칠레	0.30	0.18	0.07	1.7	1.2	0.4
7	캐나다	0.00	0.00	0.01	0.0	0.0	0.1
	합계	17.94	15.75	16.32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⑤ 냉장고(HS Code 8418.21)

- 현 관세율 13%에서 10년에 걸쳐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으로 한국의 LG전자 제품이 현지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 기록
- 중국산 제품은 16년에 걸쳐 관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반사이익이 기대됨
- 한편, 냉장고는 LG(19%), Coldex(16%)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산 냉장고는 고품질로 크게 호평을 받고 있음

<페루의 냉장고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콜롬비아	2.45	3.16	4.37	24.8	32.0	28.1
2	중국	3.77	3.12	4.35	38.1	31.6	28.0
3	인도네시아	0.00	0.00	2.96	0.0	0.0	19.0
4	태국	2.29	1.86	2.85	23.2	18.8	18.3
5	멕시코	0.25	0.60	0.32	2.5	6.0	2.1
6	미국	0.30	0.22	0.30	3.1	2.2	1.9
7	칠레	0.32	0.39	0.13	3.3	4.0	0.9
8	브라질	0.37	0.40	0.13	3.8	4.1	0.8
9	한국	0.11	0.00	0.12	1.1	0.0	0.8
10	스페인	0.01	0.00	0.01	0.1	0.0	0.1
	합계	9.87	9.89	15.56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⑥ 인혈, 백신(HS Code 3002)

- 한국 백신은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 분야는 아직 중국 제품이 진출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 백신제품의 경쟁력은 일본보다 오히려 높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이번 FTA발효로 인해 10년에 걸쳐 한국 제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실시, 현재 관세율 6%는 철폐될 예정임

<페루의 백신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미국	18.81	60.69	79.58	23.6	43.3	45.1
2	영국	3.07	3.38	21.12	3.9	2.4	12.0
3	독일	4.82	12.64	15.48	6.1	9.0	8.8
4	벨기에	6.18	9.78	12.05	7.8	7.0	6.8
5	한국	16.73	10.09	7.70	21.0	7.2	4.4
6	프랑스	5.16	9.25	6.07	6.5	6.6	3.4
7	인도	1.97	2.40	5.55	2.5	1.7	3.1
8	스위스	5.66	5.10	5.19	7.1	3.6	2.9
9	네덜란드	2.80	2.48	3.81	3.5	1.8	2.2
14	일본	0.77	0.96	1.19	1.0	0.7	0.7
	합계	79.60	140.12	176.58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⑦ 의약품(HS Code 3003 및 3004)

○ 상기 두 종류 현 관세율은 6%로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예정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

-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암 치료제는 미국과의 FTA발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매가격은 더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FTA발효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의약품의 대페루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한국의 대페루 의약품 수출은 2009년 1,0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25.7% 감소했으며, 2010년에는 800만 달러로 2009년 대비 다시 14.1% 감소한 상태로 국내 업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페루의 의약품(3003)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미국	0.85	0.53	1.37	26.1	13.5	30.2
2	중국	0.13	0.25	0.78	4.1	6.3	17.2
3	인도	0.53	0.64	0.65	16.5	16.2	14.3
4	스페인	0.40	0.57	0.46	12.4	14.4	10.2
5	스위스	0.24	0.49	0.39	7.4	12.5	8.6
6	아르헨티나	0.26	0.70	0.31	8.2	17.8	6.9
7	남아공	0.12	0.15	0.15	3.7	3.9	3.2
8	이탈리아	0.03	0.07	0.09	0.9	1.7	2.0
9	독일	0.07	0.01	0.07	2.3	0.3	1.5
19	한국	0.00	0.00	0.03	0.0	0.0	0.1
	합계	3.24	3.93	4.54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페루의 의약품(3004)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콜롬비아	32.62	28.72	33.07	11.0	9.5	10.1
2	멕시코	24.07	27.97	30.66	8.1	9.2	9.4
3	아르헨티나	26.52	27.57	27.53	8.9	9.1	8.4
4	미국	33.04	26.73	26.66	11.1	8.8	8.1
5	독일	21.69	20.39	24.64	7.3	6.7	7.5
6	칠레	17.88	17.96	19.98	6.0	5.9	6.1
7	인도	15.38	17.34	19.83	5.2	5.7	6.1
8	브라질	19.54	18.99	18.66	6.6	6.3	5.7
9	스위스	10.92	16.39	18.09	3.7	5.4	5.5
10	중국	8.60	6.95	14.55	2.9	2.3	4.4
27	한국	1.04	1.37	1.70	0.4	0.5	0.5
	합계	297.09	303.51	327.48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⑧ 식물(HS Code 5208, 5209, 5211, 5512, 5513, 5515, 5603)

- HS Code 5603의 6%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물 제품의 관세율은 13%로 향후 10년에 걸친 관세철폐 대상
- 중국산 및 인도산 식물의 수입 비중이 높으나 낮은 가격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함. 반면, 한국산 식물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현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 따라서 이번 FTA로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페루의 식물(5208)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중국	5.81	8.24	13.43	68.1	78.3	73.4
2	콜롬비아	0.12	0.14	1.32	1.5	1.3	7.2
3	파키스탄	0.76	0.32	0.81	9.0	3.1	4.4
4	인도	0.39	0.40	0.61	4.6	3.8	3.3
5	브라질	0.45	0.41	0.56	5.3	3.9	3.1
6	대만	0.07	0.05	0.49	0.8	0.5	2.7
7	스페인	0.25	0.21	0.21	2.9	2.0	1.2
8	캐나다	0.07	0.06	0.19	0.8	0.5	1.0
9	이탈리아	0.09	0.16	0.19	1.0	1.5	1.0
12	한국	0.04	0.05	0.08	0.5	0.5	0.5
	합계	8.53	10.54	18.28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페루의 식물(5209)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콜롬비아	2.59	2.67	9.42	6.9	12.9	25.0
2	칠레	8.48	4.36	9.13	22.6	21.1	24.3
3	파키스탄	5.13	2.77	3.57	13.7	13.4	9.5
4	미국	1.46	1.36	2.91	3.9	6.6	7.7
5	브라질	4.63	2.50	2.54	12.3	12.1	6.7
6	에콰도르	1.66	1.47	1.93	4.4	7.1	5.1
7	베네수엘라	1.45	0.08	1.59	3.9	0.4	4.2
8	바레인	0.00	0.11	1.54	0.0	0.6	4.1
9	대만	3.38	2.12	1.34	9.0	10.2	3.6
10	중국	3.18	0.77	1.28	8.5	3.7	3.4
16	한국	0.07	0.02	0.03	0.2	0.1	0.1
	합계	37.55	20.71	37.63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페루의 식물(5211)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중국	22.55	13.93	25.72	77.4	76.4	74.9
2	콜롬비아	1.16	1.24	3.92	4.0	6.8	11.4
3	에콰도르	1.01	0.71	1.16	3.5	3.9	3.4
4	미국	0.17	0.31	0.76	0.6	1.7	2.2
5	대만	1.17	0.41	0.62	4.0	2.3	1.8
6	브라질	0.13	0.17	0.59	0.4	0.9	1.7
7	파키스탄	0.61	0.69	0.45	2.1	3.8	1.3
8	인도	0.26	0.21	0.41	0.9	1.1	1.2
9	홍콩	0.00	0.00	0.22	0.0	0.0	0.7
15	한국	0.06	0.04	0.02	0.2	0.2	0.1
	합계	29.14	18.25	34.36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페루의 식물(5512)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중국	2.48	2.46	3.86	69.3	73.9	80.5
2	미국	0.38	0.25	0.43	10.5	7.6	8.9
3	스페인	0.10	0.02	0.16	2.8	0.6	3.4
4	인도	0.13	0.14	0.14	3.7	4.2	2.9
5	프랑스	0.06	0.07	0.11	1.6	2.1	2.2
6	이태리	0.00	0.00	0.03	0.0	0.0	0.6
7	브라질	0.01	0.03	0.02	0.2	0.9	0.3
8	한국	0.02	0.03	0.01	0.6	1.0	0.3
9	대만	0.01	0.02	0.01	0.3	0.6	0.2
	합계	3.57	3.33	4.80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페루의 식물(5513)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파키스탄	5.34	4.71	5.67	49.8	62.6	59.9
2	중국	1.55	1.84	1.17	14.4	24.5	12.4
3	인도네시아	2.56	0.52	1.06	23.9	6.9	11.2
4	태국	0.02	0.00	0.81	0.1	0.0	8.6
5	말레이시아	0.37	0.00	0.21	3.4	0.0	2.3
6	대만	0.37	0.12	0.19	3.5	1.6	2.0
7	콜롬비아	0.01	0.01	0.12	0.1	0.1	1.2
8	에콰도르	0.34	0.16	0.09	3.1	2.2	0.9
9	미국	0.12	0.09	0.07	1.2	1.1	0.8
12	한국	0.00	0.01	0.00	0.0	0.1	0.0
	합계	10.74	7.52	9.47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페루의 직물(5515)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인도	8.54	5.75	11.52	81.5	74.6	78.2
2	중국	0.96	0.82	1.42	9.2	10.7	9.6
3	멕시코	0.01	0.00	0.52	0.1	0.0	3.6
4	스페인	0.13	0.20	0.34	1.3	2.6	2.3
5	한국	0.19	0.32	0.28	1.9	4.2	1.9
6	콜롬비아	0.03	0.24	0.19	0.3	3.1	1.3
7	브라질	0.27	0.18	0.17	2.6	2.3	1.1
8	대만	0.07	0.03	0.06	0.7	0.4	0.4
9	미국	0.09	0.09	0.06	0.9	1.2	0.4
	합계	10.47	7.71	14.73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페루의 직물(5603)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	수입			점유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	브라질	8.94	6.65	19.76	16.3	15.6	27.5
2	미국	6.25	7.78	12.63	11.4	18.2	17.6
3	콜롬비아	13.95	6.51	10.61	25.4	15.2	14.8
4	아르헨티나	8.49	7.88	8.32	15.5	18.4	11.6
5	한국	10.65	7.84	6.97	19.4	18.4	9.7
6	중국	3.37	3.60	6.14	6.1	8.4	8.6
7	멕시코	1.11	0.84	1.83	2.0	2.0	2.6
8	스페인	0.12	0.08	0.91	0.2	0.2	1.3
9	벨기에	0.00	0.02	0.89	0.0	0.0	1.2
10	베네수엘라	0.44	0.35	0.83	0.8	0.8	1.2
	합계	54.95	42.71	71.78	100.0	100.0	100.0

자료원 : WTA

3.2. 투자진출 유망분야

가. 한국의 페루 진출 유망분야

산업	유망사유
① 수산업	이미 여러 국내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페루의 내수 수산물 소비가 증가로 시장은 지속 확대될 전망
② 자원 및 전력	기 진출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확대 투자 및 발전, 송전 등 전력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이 매우 유망
③ 물류 및 컨설팅	FTA로 상품 수출입 증가와 인적자원 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물류 서비스와 컨설팅 분야의 현지 진출 유망 FTA 체결이후 현지의 다양한 SOC 프로젝트 진출업체가 크게 증가할 전망
④ 농산물 및 바이오에너지	토양과 품종이 우수한 페루의 농산물 및 특용작물 재배와 함께 바이오 에너지 생산 원료인 사탕수수 및 옥수수 재배가 유망

나. 페루의 한국 진출 예상분야

산업	유망사유
① 요식업	페루의 한국진출 가능 분야로 요식업이 가장 유망한 분야로 부각 - 감자튀김과 함께 먹는 “닭고기 구이”는 중국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함
② 식품·음료수	페루산 포도주, 안데스산 자연식품, 맥주 등의 진출
③ 의류	페루산 알파카직물 의류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

3.3. 투자진출 유망 프로젝트

가. 전력·에너지 프로젝트

(단위 : 백만불)

프로젝트	투자규모	입찰예정일
① 석유 저장탱크 건설	400	2011 3/4
② 화력발전소 건설	1,300	2011 4/4
③ 뜨루히요 LPG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1,400	2011 4/4

자료원 : 페루 개발청

① 석유저장탱크 건설 (Hub Petrolero en Bayovar)

- 위치 : 세츄라(Sechura), 삐우라(Piura) 지역
- 프로젝트 내용
 - 탄화수소 파생물 및 석유 저장탱크 디자인, 건설, 재정, 보존 및 개발
- 투자 규모 : 4억달러

② 화력발전소 건설 (Nodo Energetico del Sol)

- 위치 : 페루 남부
- 프로젝트 내용
 - 안데스 남부지역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투자 규모 : 13억 달러
- 입찰 사전 심사 : 2011년 2/4분기

③ 뜨루히요 LPG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 위치 : 페루 사막 중부 /북부해안
- 프로젝트 내용
 - 1,000km이상의 파이프라인 설치 및 운영
- 투자 규모 : 14억 달러
- 입찰 사전 심사 : 2011년 2/4분기

나. 항만·공항 프로젝트

(단위 : 백만불)

프로젝트	투자규모	입찰예정일
① Pucallpa 항만 터미널	16.7	2011.6
② General San Martin-Pisco 항만 터미널	111	2011.6
③ Yurimaguas 수로 확장	미정	2011.12
④ Cusco 신국제공항 건설	379	2011 2/4

자료원 : 페루 개발청

① Pucallpa 항만 터미널

- 위치 : Coronel Portill 州
- 프로젝트 내용 : Pucallpa 항만 터미널 건설
- 투자 규모 : 16.7백만불

② San Martin 항만 터미널

- 위치 : Ica 州 Pisco
- 프로젝트 내용
 - 터미널 건설을 위한 파이낸싱 및 운영 전반
- 투자 규모 : 111백만불

③ Yurimaguas 수로 확장

- 위치 : Huallaga, Marañón, Amazonas 강주변
- 프로젝트 내용
 - Yurimaguas 수로 확장 계획으로 현재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중

④ 쿠스코 국제공항 건설

- 위치 : Cusco
- 프로젝트 내용 : 국제공항 신규 건설
- 투자규모 : 379백만불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 입찰

다. 관광자원 개발 프로젝트

(단위 : 백만불)

프로젝트	투자규모	입찰예정일
① San Lorenzo 섬 개발	379	2011년 3/4분기
② Lobitos 해변 개발	119	2011년 2/4분기

자료원 : 페루 개발청

① San Lorenzo 섬 개발 프로젝트(Isla San Lorenzo)

- 위치 : 리마와 인접한 카야오(Callao) La Punta 대안에 위치
- 프로젝트 내용 : 섬 개발 프로젝트로 총 규모는 1,457 ha
- 투자규모 : 379 백만불
- 입찰 예정일 : 2011년 3/4분기

② Lobitos 해변(Playa Lobitos)

- 위치 : 북쪽 Piura 州 Lobitos 지역
- 프로젝트 내용
 - 1,800m 길이의 해변 개발 및 70ha 규모 부지에 리조트 조성
 - 프로젝트를 통해 쇼핑센터 및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의 휴양 시설 개발예정
- 투자규모 : 119백만불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 입찰
- 입찰일 : 2011년 2/4분기

3.4. 우리나라 진출 기업현황

□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대 페루 투자는 2010년 9월 기준 총101건, 15억 6,600불로 주로 광물, 에너지 분야 (51건 13억 7,800만불)에 집중
 - 광물분야로는 광물자원공사, LS니꼬, 고려아연 등이 주로 동광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아연, 몰리브덴 등 기타 광물 분야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석유, 가스 분야에는 SK에너지와 석유공사, 대우인터내셔널이 기 진출함
- 오징어, 게맛살 등 수산업에도 대원수산, 페루코, 후리코 등의 기업이 기진출, 현지에서 생산, 가공하여 한국으로 재수출 방식으로 재반입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업체들이 광어 등 수산물 양식 분야도 진출시도 중
- 또한, 2009년 FHL사가 온라인 게임에 진출한 이후 인터넷 게임분야 진출도 향후 유망시되는 분야로 부각 중
- 전자제품은 삼성, LG, 대우 등 3사가 진출해 있으며, 이들 3사의 현지 점유율은 70%에 육박
- 자동차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현지 딜러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이들 자동차가 현지 시장의 29%를 차지

□ 주요 진출업체

회사명	진출년도	업종	취급분야	파견직원	비고
삼성전자	1996	유통	전자제품	7	법인
LG전자	1997	유통	전자제품	7	법인
대우전자	2009	유통	전자제품	1	지점
대우인터내셔널	1996	서비스	자원개발	2	법인
한국석유공사	1996	석유	석유개발	2	지사
사비아 페루	2009	석유	석유개발	8	법인
SK에너지	1996	석유,가스	석유,가스	9	지사
광물자원공사	2007	광업	광산개발	2	지사

LS니꼬	2007	광업	광산개발	1	지사
고려아연	2010	광업	광산개발	3	법인
포스코건설	2009	건설	발전소건설	33	법인
태웅로지스틱스	2010	서비스	물류	1	법인

자료원 : 리마 KBC

3.5. 주요 프로젝트

기업명	내용	투자규모	비고
KT	한국기업 최초로 페루 WIBRO 시장 진출 추진 - 2011년 상반기 중 현지법인 설립 검토	2억불	로메로그룹 과 협력
한전	한국 기업 최초로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750MW)참여 검토 중 - 2011년 수주 및 시공 추진	12억불	삼성물산 공동
유니슨	페루 풍력발전 시장진출, 현지기업과 NDA 체결후 참여 가능 프로젝트 발굴중	1억불	-
롯데건설	침보테 항구의 수처리시설 프로젝트 - 2010년부터 사업 참여 추진	2억불	벽산엔지 어링공동
POSCO 건설	칠카 화력발전소 복합화력(810MW) 개조공사 - 2012년 공사완료 예정	3.5억불	-
기타	SK 에너지 (석유화학플랜트) SK건설 (발전소 건설) STX (공항, 도로, 발전소) 두산중공업, 효성에바라 (담수화) 현대엔지니어링 (상수도 건설) 도화종합기술공사(신재생에너지) 한라산업개발(수처리, 폐기물처리-	-	-

자료원 : 리마 KBC

IV. 한·페루 FTA체결 현지 반응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4.1. 현지 주요업체 반응

□ 자동차 업체

이름/직위	Mr. Daniel Cruz/영업부장
회사명	SJ Distributions
면담내용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만, 중국, 일본, 인도산 차를 수입 중으로 FTA로 인해 페루에서의 한국산 차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완성차와 더불어 부품의 거래가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FTA로 인해 한국 차 시장은 약 10% 확대될 전망

□ 배터리

이름/직위	Mr. Mori Valdizán/영업부장
회사명	Detroit Diesel - MTV Peru SAC/수출부장
이메일	mvaldizan@bbperu.com.pe
면담내용	·배터리 수입업체인 동사는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의사가 다분. 또한, 배터리 외에도 수입 품목 확대 가능성을 고려중 ·페루에서 한국 제품들은 가격과 질, 양쪽 모두 인정을 받고 있어 FTA로 5~10% 가격인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

□ 강판

이름/직위	Ms. Ana María Izquierdo/수입 담당
회사명	JN Aceros S.A.
면담내용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확보,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현재 한국으로부터 냄비 제조를 위한 철판을 수입중으로 향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릴 계획 있음

□ 원단

이름/직위	Ms. Sara Manrique/수입부장
회사명	Amazon Corporation S.A.
이메일	smanrique@amazoncorporation.com.pe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섬유업계는 이번 한국과의 FTA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 · 이미 중국, 인도 등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고가인 한국산 원단은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 · 그러나 동사는 한국 원단은 품질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FTA 발효로 가격이 10% 낮아지게 되면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 식품 및 농산물업계

이름/직위	Mr. Alberto Marzinez/수출부장
회사명	Gandules S.A.C
이메일	amartinez@gandules.com.pe
전 화	(51-1) 627-0300, 교환 326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제품의 기술이 Gandules S.A.C 사는 종업원 3,000명, 2010년 매출액, 4,200만 달러 규모의 식품회사로 전 세계 32개국에 페루산 열대과일, 안데스 고원지대 곡류, Aji(고추), 할라피뇨, 열대 지방 견과류를 수출 중 · 페루는 농산물은 풍부하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식품포장기계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동사 역시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나, FTA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기계 수입을 모색 중

□ 광산업계

이름/직위	Mr. Paolo Cabrejos Martín/ 영업직원
소속	VOLCAN COMPAÑÍA MINERA S.A.A.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으로부터 중장비를 수입, 동시에 구리를 수출하는 동사는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 있음. 그 외에도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로부터도 수입 중 · 한국 제품의 기술이 뛰어나 향후 가격이 내려간다면 한국 제품의 수입확대도 고려할 의사가 있음 · 특히, 한·페루 FTA 체결로 구리와 은의 수출이 늘어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 서비스업계

이름/직위	Beatriz Cubas / 행사 담당 직원
소속	HOTEL SWISSOTEL LIMA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미국으로부터 집기와 장식용 가구, 크리스털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품질이 보장된다면 향후 한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의사 있음

□ 현지 자원개발 및 인프라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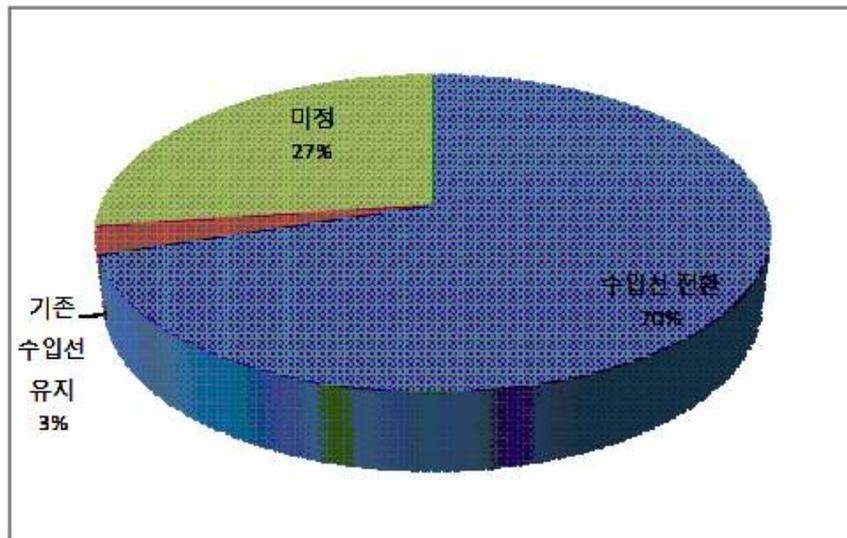
이름/직위	Mr. Victor Manuel Vargas Vargas/ 광업국장
소속	페루에너지광업부
이메일	vvargas@minem.gob.pe
전화	(51-1) 224-4490, 교환 2200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업체들이 일부 진출하였으나 FTA를 계기로 광업 부문에 더욱 활발히 투자할 필요 · 또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선, 케이블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동을 이용한 케이블 제조 분야의 투자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음 · 페루 광업계는 한·페루 FTA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이번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

이름/직위	Mr. Edgar Patino Garrido/항만투자국장
소속	페루투자청
이메일	epatino@proinversin.gob.pe
전화	(51-1) 612-1200
면담일시	2011.3.16 오후 5시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업체들의 페루 항만건설 분야 진출을 희망. 중국 업체들이 Marcona 등 항만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한국 업체들의 진출은 매우 저조한 편 · 페루의 광물 개발 및 수출을 위한 항만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국 업체들의 전향적인 자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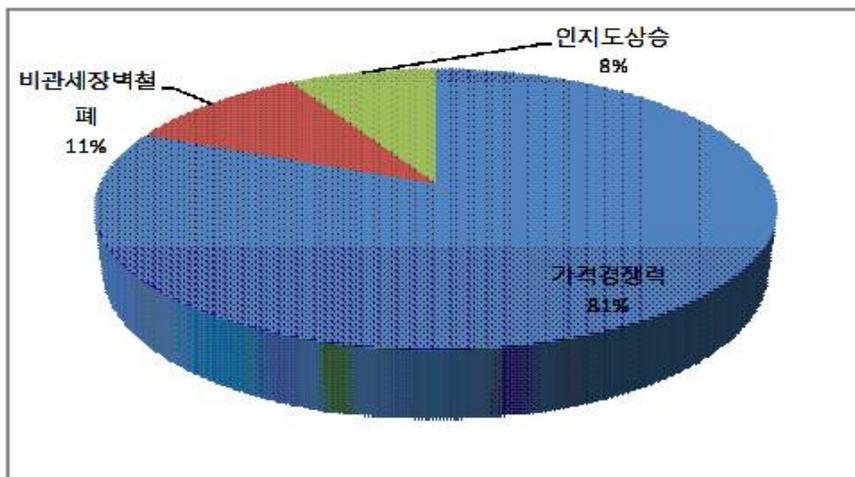
이름/직위	Mr. Carlos Herrera/투자유치국장
소속	페루투자청(ProInversion)
이메일	cherrera@proinversin.gob.pe
전화	(51-1) 612-1200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대페루 진출은 투자보다는 수출에 집중되어 왔으나, 본 협정을 통해 대 페루 투자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 · 페루는 사회간접자본 분야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바, 이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 요망 · 최근 한국의 두산 같은 업체가 페루의 담수화플랜트 분야에 진출 시도한 것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매우 고무적인 사례 · 페루의 농수산업, 자연식품 가공 등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이 매우 유망. 특히, 안데스 산맥이나 아마존 유역의 특용작물을 생산, 가공하는 업종 유망 · 석유화학공업 분야의 투자도 유망한 바,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한국의 SK 같은 기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투자를 한다면 전용 수출자유지역 조성 고려 가능

4.2. 바이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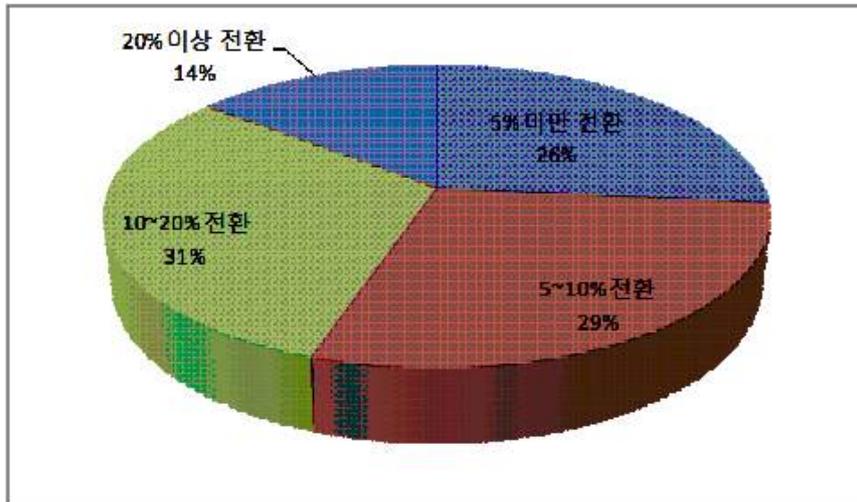
- 현지 바이어 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페루 FTA 발효 후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의사를 밝힌 바이어가 총 응답의 70%(49개사)에 달한 반면, 수입선 전환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이어는 3%(2개사)에 불과.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바이어는 19%(19개사)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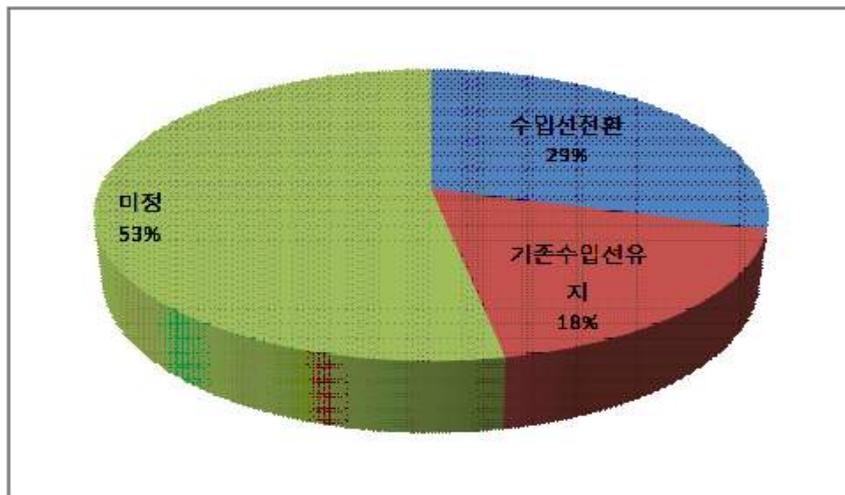
- 수입확대의 가장 큰 이유는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로 나타났는데, 대한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바이어의 81%(2개사)가 가격인하로 인한 경쟁력을 원인으로 꼽았음. 다음으로 '비관세장벽 철폐(11%)',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8%)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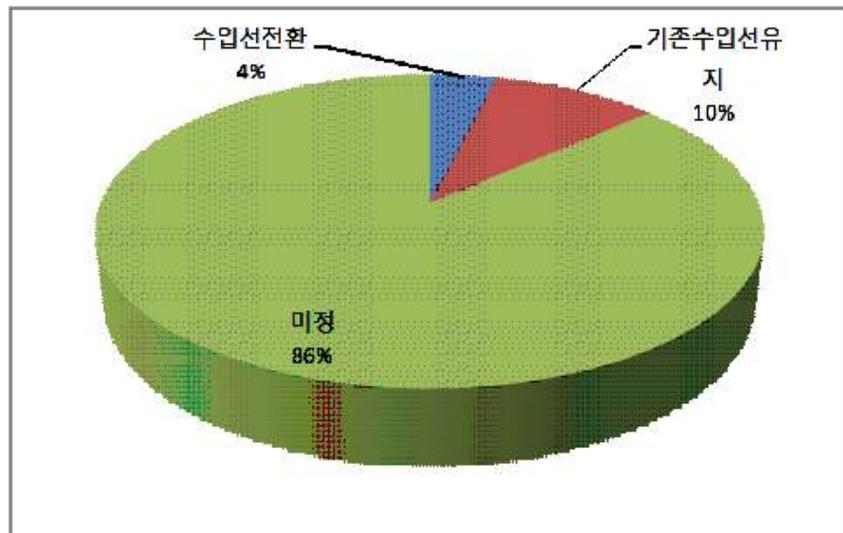
- 한국 제품 수입 확대폭에 대하여 5% 이상이라고 응답한 바이어는 67%에 달해 한-페루 FTA발효로 인한 대페루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가 기대됨



- 국가별로는 중국과 거래하는 바이어의 29%가 FTA발효시 한국으로의 거래전 전환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기존 수입선을 유지하겠다는 응답비율도 18%,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바이어도 50%에 달함



- 또한, 일본과 거래하는 바이어의 86%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바이어의 10%만이 기존 수입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부동층을 확보하는 것이 대페루 수출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



4.3.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반응

① LG전자

- FTA 체결이 기존 거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수입관세 철폐로 가전제품은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하며, FTA로 일본 제품과의 경쟁력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기대

② 삼성전자

- FTA로 인한 매출 상승보다는 회사 이미지 상승효과를 더 기대
- 현재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 전자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혜택은 미미하나, 관세(이중관세 등)가 붙는 가전 및 전자제품 위주 수혜 예상

③ SK 에너지

- FTA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나,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 기대

④ POSCO

- 건설업은 FTA 수혜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일부 건축자재 등을 수입하나 금액이 미미하여 큰 영향을 없을 전망.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에는 긍정적

⑤ 인트라 월드 와이드

- 동사는 보안장비 수입업체로, 현지 보안장비 시장은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낮으며 무관세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변화는 없을 전망

⑥ 욱일사

- 중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무관세 대상으로 FTA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부품의 경우 5~9%의 관세가 철폐되어 혜택이 예상
- 부품은 FTA 체결로 일본 등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다소 확보할 것으로 기대

⑦ 아우토 코리아

- 관세철폐로 한국차의 경쟁력은 한 단계 상승하여 일본·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망, 아울러 한국 인지도 상승 기대

⑧ 세일이앤씨

- 자재와 공구들을 수입하는 동사는 관세철폐로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을 기대

⑨ CNC SAC, 후리코(주)

- FTA가 발효되면 수산물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이에 따라 오징어 가공업체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 관세가 당장 철폐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수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⑩ 대우 일렉트로닉스

- 백색가전을 주로 취급하며, 현재 가장 많이 판매중인 냉장고와 세탁기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각각 13%의 관세 부과중
- FTA 발효로 관세철폐가 되면 가격경쟁력이 생겨 현지에서의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4.4. FTA활용 우리기업 진출전략

- FTA는 페루에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서 한국제품의 수출 증대 및 남미시장 진출 확대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 한·페루 FTA는 상품수출뿐 아니라 투자 촉진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 대기업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 진출뿐 아니라 현지의 원부자재 및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중소 제조업체의 투자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건설업체, SOC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서비스업체의 페루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
- 그럼에도 이미 많은 한국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고, 페루가 이미 미국·중국과 FTA를 체결, 일본과도 협상타결이 완료되는 등 시장개방 체제를 활발히 구축하고 있어 페루 시장에서의 경쟁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